쇠고기 원산지표시 잘 지키나… 광주시 북구청 농축산유통팀이 24일 북구의 한 축산 유통업체에서 쇠고기 이력표시제 이행 여부와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교육청 학교체육 홀대"

평생건강과 폐지 직제 개편안에 체육계 집단 반발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챙겨야할 체육·건강 부서를 감축키로 하자 체육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개된 교육청 조직개편안에서 평생교육건강과를 인성복지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체육교육을 전담했던 팀이, 인성복지과에서는 체육·문화교육팀으로 통합된다.

문제는 방대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해온 체육팀이 문화까지 아우른 조직으로 통합돼 사실상 역점업무인 체육교육이 크게 위축된다는 점이다.

체육계는 개편안이 나오자 마자 반발했다. 광주시체육회 경기단체 전무이사들은 지난 21일 시체육회에서 모임을 열고 항의방문을 검토했다. 장애인 체육단체도 가세할 움직임이다. 체육관련 부서가 수년전부터 '홀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까지 평생교육체육과였으나, 이후 평생교육건강과로 개편됐고 이번 개편안에서는 체육과 연관된 명칭조차 사라졌다.

한 가맹단체 전무이사는 "체육교육 강화가 대세임에도 이를 역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관철된다면 광주시 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직제 중 체육·건강 등의 명칭을 없앤 유일한 기관이 된다.

체육교육은 전통적으로 강조돼 왔다. 체육 전담팀은 133개교 165개팀의 학교 운동부 관리·전국체전 선수육성, 초중고 체육시설 관리를 도맡았으며, 광주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50여개 경기단체와 유관업무를 처리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장애인 체전 등 굵직한 대회도 치렀다. 학생 체력평가, 체력증진, 비만 관리도 고유업무의 하나다.

체육계는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 조직개편 작업을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체력증진을 위해 광주시와 체육회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교육청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파 내달 중순에야 풀린다

1월기온 평년보다 4도 낮아

1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4도 가량 낮은 것으로 기록되는 등 광주와 전남·북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맹추위는 다음달 중순께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가 발표한 '광주와 전남·북 1개월 전망'에 따르면, 2월 초순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중순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보했다.

2월 초순(1~10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두 세 차례 강한 추위가 나타나겠다. 중순(11~20일)에는 일시적으로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위가 나타나고 하순(21~28일)에도 기온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평년(2도~5도, 14~22㎜)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가 지속됐으며,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5도~4.8도 가량 낮았다. 이 기간 광주와 전남·북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도 평년은 2.1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3.1일을 기록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014년 고교 선택과목 통폐합

과목수 261개서 198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통·폐합되고 영어, 수학의 경우 학생들이 학력 또는 진로에 따라 상·중·하 3단계 중에서 골라 배우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고시한 2009개정 교육과정의 후속 조치로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1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발표, 올 안으로 확정키로 했다. 우선 고교 선택과목 중 중복 과목, 이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과목이 통·폐합돼 과목 수가 261개에서 198개로 줄어든다.

수학의 경우 현재 일반고 학생들이 배우는 보통과목(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I, 수학II 등)과 과학고생들이 배우는 전문과목(고급수학)이 2014학년도부터는 기본(기초수학), 일반(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등), 심화(고급수학I, 고급수학II)로 바뀐다.

'국민공통'이지만 선택과목 성격도 있는 한국사, 과학은 남는다. 올안으로 확정된 내용은 2014학년도에 초1·2 및 중1, 고1부터 적용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교육복지 프로그램 확대

전남도교육청은 24일 저소득층 등 교육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목포와 여수, 순천 등 3개 지역 17개교(유치원 2개 포함)에서 나주와 광양, 화순, 해남 등 16개 지역 69개교(유치원 2개교 포함)로 확대된다.

혜택받는 학생 규모는 9000여명에서 3만여명으로 늘어나며 사업비도 19억원에서 대폭 늘어 73억원이 지원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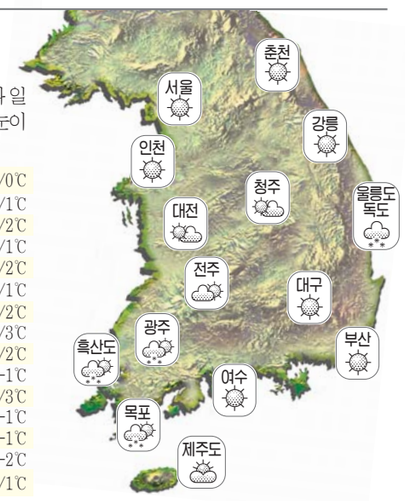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7분 / 해짐 17시 53분 — 달뜸 --시 --분 / 달짐 10시 34분

계량기 동파 주의!

가끔 구름 많겠고,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방에서 아침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 주	눈온뒤 갬	-7/0℃
목 포	눈온뒤 갬	-4/1℃
여 수	맑음	-5/2℃
나 주	눈온뒤 갬	-8/1℃
완 도	구름많음	-4/2℃
구 례	구름조금	-8/1℃
해 남	눈온뒤 갬	-6/2℃
장 흥	눈온뒤 갬	-6/3℃
순 천	구름조금	-5/2℃
영 광	눈온뒤 갬	-9/-1℃
진 도	눈온뒤 갬	-4/3℃
전 주	구름점차적어짐	-10/-1℃
군 산	구름점차적어짐	-8/-1℃
남 원	구름조금	-12/-2℃
흑산도	눈온뒤 갬	-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4.0m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높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밀물	썰물
목포	06:02 18:16	11:04 23:29
여수	00:36 12:49	06:35 18:5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날 씨						
최저/최고	-9/0	-6/2	-4/0	-5/0	-6/-2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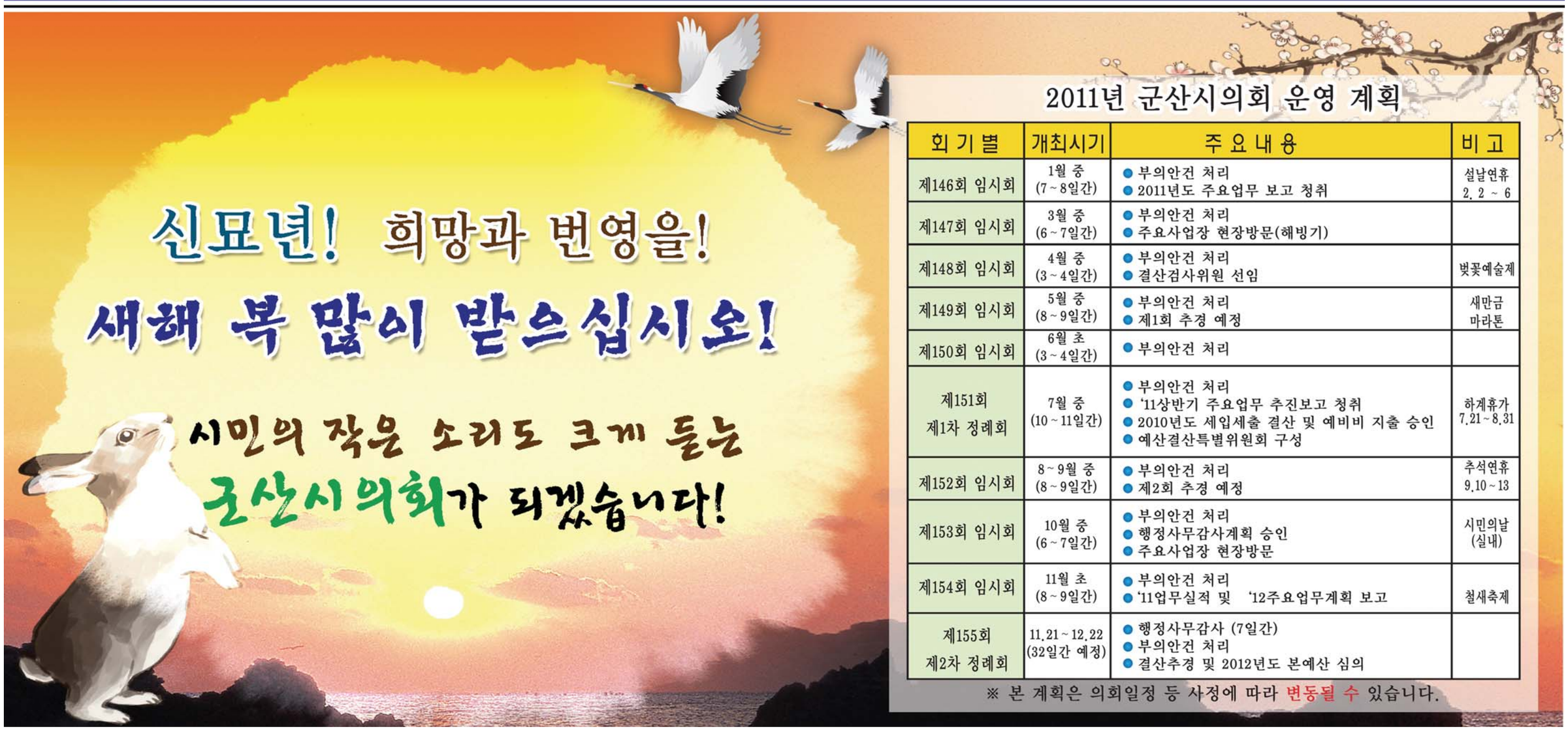
5·18기념재단 이사장에 김준태 시인

김준태 시인이 5·18기념재단 이사장에 선출됐다.

(사)5·18기념재단 이사회는 24일 "2011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제10대 이사장으로 김준태(62·사진) 시인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전남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1980년 6월 2일자 전남매일 1면에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라는 작품을 게재, 보안대에 붙들려가 강제 해직 당했다.

전남일보, 광주매일 재직 시 '광주전남현대사', '정사5·18'을 5년여에 걸쳐 기획·집필했으며, '칼과 흙' 시집을 포함해 30여권의 책을 펴냈다.

김 이사장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조선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